

성과보다 ‘질적 성장’... 신한라이프 수장 교체

이영중 ‘최대실적’에도 교체 단행
진옥동 질적 성장 중심 기조 천명
비은행부문 경쟁력 강화 목표 제시
천상영, 재무역량 기반 혁신 추진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도 신한라이프를 이끌던 이영중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통합 법인 안정화와 ‘TOP2도약’을 내걸고 생명보험업계 판도를 흔든 성과에도, 신한금융은 ‘성과의 질’과 ‘새로운 리더십’을 이유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5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4개 자회사 가운데 신한라이프와 신한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로는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그룹재무부문 담당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진옥동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조직관리와 인재육성 책임자로서 CEO의 역할,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내부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의도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영중 신한라이프



이영중 신한라이프 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후보

사장의 성과는 분명하다. 신한라이프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은 2022년 4494억원, 2023년 4724억원, 2024년 5284억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51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늘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신한라이프는 업계 ‘빅3’ 구도를 흔드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영중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TOP2를 향한 질주, 밸류업 투게더(Value-Up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위권 도약을 공식화했다. ‘고객 편의성 제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영업 경쟁력 혁신,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성과 확대’라는 세 축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생보사간순위 경쟁에 불

을 지켰다.

실적의 바탕에는 포트폴리오 전환과 체질 개선 전략이 있었다. 신한라이프는 저축성 상품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IFRS17(보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금리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3분기 누적 투자손익을 전년 대비 약 50% 가까이 끌어 올리는 등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다.

영업 전략도 공격적이었다. 이 사장은 영업전략회의를 통해 설계사(FC)와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축으로 한 영업 경쟁력 혁신을 주문했다. GA 조직을 별도 본부로 격상하고 지원 기능을 정비해 생산성과 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채널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런 맥락에서 천상영 후보의 발탁은 ‘성장 이후의 선택’이란 해석이 따른다. 1969년생인 천 후보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지점장, 신한카드 글로벌사업본부장,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원신한지원 본부장 등을 거친 재무·전략통이다. 2020년대 들어선 지주 그룹재무부문 담당 부사장(CFO)으로서 자본정책과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전반을 맡아왔다. 지난해부터는 신한라이프 이사회에도 참여해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해온 인물로 꼽힌다.

진옥동 2기 체제가 천 후보에게 부여한 과제는 뚜렷하다. 단기 실적과 외형 성장을 이영중 체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만큼, 앞으로는 자본 효율성, 위험 기반 수익 구조,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사업에서의 질적 성과를 끌어올려 ‘비은행 1등 계열사’로서 입지를 굳히라는 주문에 가깝다.

자경위는 “새 리더십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할 시점”이라며 “천 후보가 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신한라이프를 더 탄탄한 회사로 업그레이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신한은행 올해 ‘금 투자’ 불티 골드바 3000kg 거래

신한은행이 올해 골드바 누적 거래량이 3000kg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1월 30일 기준 신한은행 브랜드 골드바와 매대대행 골드바의 판매 및 재매입을 거래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같은 기간 누적 거래금액은 약 4843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 브랜드 골드바는 실시간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국제 금 가격 기준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신한은행 브랜드 골드바는 런던금시장협회(LBMA·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순도 99.99%의 국제 표준 골드바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통장으로 자유롭게 골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신한 골드리슈’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0.01g 단위로 입·출금이 가능해 소액 투자도 가능하며,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뱅킹, 솔(SOL)뱅크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다. 올해 골드리슈 계좌의 신규 및 거래 금액은 8565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골드바 거래량 3000kg 돌파는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안정성과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다양한 골드 및 실버 관련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안정 연임” vs “금고 중심 개혁” vs “홈플러스 인수”

〈김인〉

〈유재춘〉

〈장재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3파전

김인, 건전성 강화 기조 유지
유재춘, 중앙회 구조 개편 강조
장재곤, 대형 유통 인수 구상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인 현 회장에게 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7일 치러진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현 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된다. 제19대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20대 선거 역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진행된다.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며, 본 선거는 17일 충남 천안



김인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유재춘 이사장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장재곤 이사장
종로광장새마을금고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큰 결은 안정과 개혁으로 나뉜다. 일선 새마을금고에선 김인 현 회장이 연임할 경우 경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18대 회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오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19대 회장직에 올랐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금고 건전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2조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던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90%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김 회장의 재임이 무산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개별 금고의 이익’에 선거 공약 초점을 맞췄다. 유 이사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중앙회를 지시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앙회 이익이 아닌 금고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홈플러스 인수’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주목받았다. 금융과 유통을 연결하는 국내 첫 상생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인수에 1조 5000억원~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1조 2000억원을 중앙회가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를 조성해 인수 금액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홈플러스의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자 유통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하고 나선 상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홈플러스를 낮은 가격에 인수한다 해도 새마을금고가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입후보 개별 리스크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김 회장은 금고 여성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1조 소각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각식 참석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소각은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프 마루에서 개최된 새도약기

금 소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빚이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10월 시작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총 6조 2000억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 매입은 5조 4000억원

(34만명), 2차 매입은 8000억원(7만 6000명)이다.

이날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 지원 수급자) 보유분 1조 1000억원, 7만 명분을 소각했다.

1차 소각 연체 채권은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았다. 소각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

를 상회했고, 연체기간은 20년 이상 25년 미만 연체가 약 50%를 차지했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고,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채권을 소각,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호반산업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최고 경쟁률 143.8대 1

호반그룹은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가 최고 143.8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세대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264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 1497건이 몰려 평균 43.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B 타입은 1순위 기타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인 143.83대 1을 기록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점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인천 검단신도시의 최종심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넥스트 콤플렉스(예정)와 법조타운(예정)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도 이번 청약 흥행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광역시 서구원당동(검단신도시 AB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 84㎡·97㎡ 총 9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2월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2월 23일부터 나흘간이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내년 12월 입주에 예정된 후분양 아파트다. 계약 후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짧아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